



〈카메라·필름〉

에이브텍, 국내 최초로 CMOS 카메라 출시

카메라 전문 벤처기업인 에이브텍(대표 이종훈)이 국내 처음으로 상보성 금속산화막 반도체(CMOS)를 채용한 카메라 기술을 개발, 관련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에이브텍이 개발한 카메라 기술은 국내 처음으로 고체촬상 관소자(CCD) 대신 CMOS 이미지 센서를 채용, 기존 카메라에 비해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별도의 비디오 캡처보드 없이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이브텍이 처음으로 상용화한 팬시용 PC카메라는 33만화소의 CMOS 이미지센서를 채용, 최고 640×480화소의 VGA급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센서로 받아들인 이미지를 7분의 1 크기로 압축해 전송속도를 높여 동영상 전송은 물론 전

송후에도 이미지의 훼손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팬시용 PC카메라는 PC와 연결해 각종 정지영상을 포착해 포토스티커를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동영상을 활용한 영상회의나 전자앨범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캐너는 물론 디지털 스틸 카메라·비디오캠코더 대신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에이브텍은 LG전자 중앙연구소에서 카메라분야의 기술개발을 전담한 연구원들이 독립해 지난해 8월 설립한 회사로 CMOS 이미지센서 설계와 각종 이미지처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 USB용 PC카메라와 감시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를 주력제품으로 개발, 상품화에 나서고 있다.

전자신문, 1999/03/18

샤프, 세계 최초 MPEG4 적용 '인터넷 뷰캠' 카메라 선배

일본 샤프가 세계 최초로 고도의 압축기술인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4'로 동영상과 음성을 압축·기록하는 카메라인 '인터넷 뷰캠 VN-EZ1'를 선보였다고 '일경B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샤프가 선보인 이 카메라는 반도체 메모리를 기록매체로 사용, 최대 1시간 분량의 동영상과 음성(160×120화소)을 기록할 수 있다.

또 기록 포맷으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ASF(Advanced Streaming Format)를 채택했다.

본체의 크기는 78.8×88×42mm이며 무게는 148g이다.

이 제품은 특히 높은 압축비율로 동영상이나 음성의 용량을 줄여 PC에 저장, 동영상을 빠르게 인터넷으로 송신할 수 있다.

샤프는 이 카메라를 월 1만대 규모로 생산, 다음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판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1999/03/19

美 사진용품시장 호황 디지털카메라 보급 등으로

최근 미국의 사진용품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全美 사진마케팅협회(PMA)는 97년 미국의 사진용품 매출이 96년비 5%, 95년대비 7.1% 증가한 142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진용품시장의 꾸준

한 신장세는 소위 'Advanced Photo System' 기술의 도입,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확대, 경기의 호황 등의 요인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이 늘면서 이들의 사진·비디오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도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전체 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는 필름 및 현상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 미국시장에서 판매된 필름은 총 9억2820만롤로 전년보다 2010만롤, 2.2% 증가했다. 인스턴트 필름을 제외한 판매량은 8억3870만롤로 전년비 1850만롤 늘어났다. 또 APS 필름의 마켓 세어는 2.8% 증가한 반면 35밀리미터 필름의 세어는 그만큼 시장이 잠식돼 주목된다.

현상 시장은 필름 시장보다 전망이 더 밝은 편이다. PMA 측은 미국 가구의 32.4%가 매월 필름을 현상하고 있으며 월 평균 가구당 필름 현상 롤 수도 3.3롤에 이르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필름 현상 시장에서는 35밀리미터 필름이 28.3%를 점해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APS 필름은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APS 필름 현상 규모가 조만간

35밀리미터 필름의 그것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의 도입에 따라 사진의 확대·복구가 훨씬 용이해져 현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카메라가 사진용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여전히 10%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회용 카메라의 매출은 전년비 23% 증가했으며 향후 연 20%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협회측의 낙관이다. 1회용 카메라의 붐은 사용하기에 편리한데다가 프라이비트 라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혼식, 수증카메라 등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도 1회용 카메라의 성공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간무역, 1999/03/15

디지털 카메라 시장 200만 화소 시대로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올 봄 200만 화소시대에 돌입한다. 시판 업체는 이미 7개사. 고화질은 물론 플러스 알파 기능에도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화소 숫자 일변도의 경쟁에서 사용 편의성을 중시한 다각적인 경쟁으로 서서히 상품 개발의 축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니콘이 25일 발매하는 '쿨피

스 950'은 쿼리스폰스를 가장 중요시한 제품이다. 전원을 넣은 후 가동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2초 정도.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도 1초 간격으로 촬영할 수 있다. 200만 화소급으로는 가장 빠르다. 촬영 데이터의 써넣기에 5초 이상 걸리는 종래 제품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화질은 물론 조작성도 기존의 일반 카메라처럼 용이하게 할 방침"이라고 니콘 관계자는 말한다. 종래의 150만 화소 기종에 비해 화질이 우수하고 선명하게 인쇄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이지만 조작성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이 회사는 반응 시간이 느리다는 디지털 카메라의 맹점에 착안했다.

쿨픽스 950은 풀이나 꽃의 촬영용 등에 접사하는 기능도 향상됐다. 디지털 기능으로 최대 10코마의 연속촬영 화상 속에서도 가장 선명한 사진을 자동선택하여 기록하는 기능도 설치했다.

소니는 디지털 카메라는 놀이 감각으로 즐길 수 있는 부가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4월1일 발매하는 사이버체트 DSC-F55K는 동화상 기록과 화상편집기능에 신경을 썼다.

동화상과 음성을 1분간 연속 촬영할 수 있고 16메가바이트의 기록매체를 이용하면 10분 40초분의 동화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다. 촬영 화상을 확

대하거나 일부를 트리밍(절취)하여 보존할 수도 있다. 이 회사는 미국에 비해 일본 시장에서는 고전하는 기미이지만 독특한 기능에서 존재를 어필, 세어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일간무역, 1999/03/15

**日 코니카,
TAC 필름 사업 본격 전개**

일본의 코니카는 액정표시장치(LCD)의 기간재료인 편광판에 사용하는 'TAC 필름'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2000년 4월에 兵庫縣 神戸事業場 내에 신공장을 건설, 양산체제를 정비한다. LCD는 용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현재의 2배인 2조엔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편광판 필름도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TAC 필름은 LCD 편광판의

보호용 필름으로서 사용되는 재료이다. 코니카는 사진필름 제조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溶液流延製膜法이라는 특수제법을 확립, 광학특성 및 表面平滑性 등에서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해외산업속보, 1999/02/12

**후지사진필름,
미국에 R&D 조직 설치**

일본의 후지사진필름은 미국의 주력 감재공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우드 공장에 연구·개발(R&D) 조직을 설치했다. 동 공장에서는 97년부터 컬러 필름의 일관생산을 개시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생산거점에 R&D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시장에서 파악한 니드를 생산에 적용시켜 현지에 대응한 제품제작을 지향한다.

후지사진필름에서는 98년 3월기에 연결결산의 해외 매출고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공장에서의 R&D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영상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해외의 소프트개발회사도 순차적으로 늘려 생산의 글로벌화에 이어 'R&D의 글로벌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산업속보, 1999/03/24

<복사기·팩스>

**샤프, 중국에서 소형·저속
디지털 복사기 증산**

일본의 샤프는 소형·저속 타입의 디지털 복사기를 증산한다. 주력 생산거점인 중국공장의 99년도 복사기 생산대수를 25% 증가한 연간 50만대로 끌어올려 일본과 미국에서의 판매활동을 강화한다.

대규모 사업소용의 법인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SOHO(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용으로 작년 가을부터 순차적으로 발매해 온 소형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소를 표적으로 한정된 저가격기를 확대판매한다.

동사의 복사기 생산량은 아날로그, 디지털 합계에서 약 100만대이다. 100% 자회사인 SOCC(중국 江蘇省)가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

日 시장, 2/4분기에 뜨는 카메라

(단위 : 엔)

판매 호조 예상 품목	소매가		상품특성 및 판매동향 전망
	백화점	슈퍼마켓	
① APS카메라	3만~5만	2만9,800~ 3만9,800	- 소형, 경량, 운반 편리, 젊은 여성이 패션으로 소지 - PC와의 접속으로 용도가 다양, 동화를 재생가능한 다기능타입이 인기
② 디지털카메라	7만~10만		- 여고생을 중심으로 인기, 촬영 즉시 즐길 수 있음
③ 인스턴트카메라		8,980~ 1만9,800	

일본경제신문, 1999/03/29

지를 국내와 프랑스, 홍콩에서 생산하고 있다.

99년도에는 코스트 경쟁력이 있는 중국에서의 생산을 확대한다.

해외산업속보, 1999/03/11

복사기업체 '공격경영' 나섰다

국내 주요 복사기 제조업체들이 최근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서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롯데캐논·신도리코 등 국내 주요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국내 복사기 시장이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임에 따라 대규모 전시장 개설, 시연회 개최, 할인행사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마련. IMF 이후 소극적으로 전개해 온 영업전략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영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최근 기업이미지 통합(CIP) 작업을 완료한 것을 계기로 올 상반기부터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그 동안 전개해 온 단품위주의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킹과 관련 소프트웨어(SW)를 한 데 묶은 상품을 개발, 출시하는 등 솔루션 형태의 영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또 지난달 중순 강남구 삼성동에 18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사무자동화

(OA)기기 전시장을 개설했으며 이 전시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전 품목을 상설 전시하고 시연함으로써 자사제품 홍보와 제품판매 극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최근 복사기시장이 점차 회복기미를 나타냄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자사 아날로그 복사기인 'NT 4140'을 25% 가량 할인해 판매하는 등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였으며 그 동안의 매출액 위주 경영전략을 수정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순익 위주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캐논(대표 김정린)은 올해 복사기 시장이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10% 가량 증가한 6만6000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부터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복사기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롯데캐논은 다음달부터 복사기 할인판매와 전국 순회시연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자신문, 1999/04/01

캐논, 컬러 FAX 상품화

일본의 캐논은 금년 가을경에 타사 제품과 컬러원고의 송수신을 행할 수 있는 팩스를 상

품화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규정한 FAX의 컬러 모드 통신의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제품이며, 9월경에 미국에서 발매하는 데 이어 일본시장에서도 연말 판매전에 맞추어 투입한다.

동사는 자사의 제품간에서만 L판의 컬러사진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제품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신기종은 표준대응의 FAX라면 타사 제품과도 자유롭게 컬러사진 등의 컬러원고를 주고받을 수 있다. 컬러모드의 국제표준 대응기를 일본 국내에서 상품화하는 것은 캐논이 처음이다.

해외산업속보, 1999/04/03

<레이저>

빌드업 기판용 '레이저 드릴' 확보 경쟁 뜨거워질듯

국내 주요 인쇄회로기판(PCB)업체들이 이동전화기를 비롯한 첨단 이동통신기기용 기판으로 채택되고 있는 빌드업 기판 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 기판 생산의 필수 생산장비인 레이저드릴 보유 여부도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빌드업 기판 선발업체로 나서고 있는 삼성전기·대덕전자에 이어 국내 주요 PCB 업체들이 빌드업 기판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빌드업 기관 생산에 필수 장비인 레이저드릴 보유 여부가 시장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척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전화기·노트북 PC 등 적기개발·양산(Time To Market)적 성격이 강한 첨단 이동통신기기 제품에 주로 채택되고 있는 빌드업 기관의 경우 개발능력과 더불어 안정된 양산체제 구축 여부가 세트업체의 물량발주 판단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레이저드릴 보유 대수는 중요한 의미를 진닌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COEX에서 열린 「일렉트로닉 워크 99」에 레이저드릴을 출품한 일본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PCB업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드릴은 총 36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

이를 업체별로 보면 빌드업 기관 시장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삼성전기가 일본 히타치의 CO₂드릴 4대와 CO₂드릴 2대 등 6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일본 드릴업체의 분석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빌드업 기관 생산에 나설 코리아씨키트의 경우 일본 히타치의 CO₂드릴 4대와 미국 ESI사의 야그드릴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야그드릴 2대는 미국 현지생산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코

리아씨키트측의 설명이다.

이밖의 빌드업 기관 생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LG전자가 일본 스미토모 CO₂드릴 1대를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PCB용 드릴가공 전문업체인 삼화산업이 일본 히타치의 CO₂드릴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드릴업체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 PCB업체들은 빌드업 기관 시장규모가 협소하다는 판단 아래 레이저드릴 확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은 빌드업 기관 생산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져 레이저드릴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빌드업 기관 원조국인 일본의 경우 300대 정도의 레이저드릴이 보급됐으며 매년 100여 대 정도씩 드릴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도 조만간 수십 여대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통상 레이저드릴 1대가 월 1000m² 정도의 빌드업 기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올해 안에 10~20대의 레이저드릴 신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일본 드릴업체의 판단이다.

이는 이동전화기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노트북 PC·PDA·캠코더 등에 빌드업 기

관의 탑재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수전자·심텍·서광전자·동아정밀·기주산업·동양물산·대방 등 중견 PCB업체들도 이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올해 빌드업 기관용 레이저드릴 확보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자신문, 1999/03/26

레이저 이용 협심증 치료법 효과적

레이저를 이용, 심장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새로운 협심증 치료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스티븐 에스텔박사는 7일(현지시각) 미 심장병학대학(ACC) 학술회의에 보고한 연구보고서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시술 받은 환자의 약 3부의 2가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에스텔박사가 테스트한 레이저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카디오제너시스(Cardio-Genesis)사가 개발한 ‘피부관통 심근혈관 이식’(PMR: percutaneous myocardial revascularization)이라 불리는 새로운 기술로서 개복술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텔박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 산재해 있는 12개 병원

에서 중증 협심증 환자 221명에게 무작위로 'PMR' 이나 기존 치료를 시행했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기존의 혈관성형술이나 바이패스수술로 치료할 수 없었던 3~4단계(협심증은 1~4단계로 나뉘어짐) 협심증 환자.

시술결과 'PMR' 을 받은 대상자는 사망자 없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으며 3분의 2에서 협심증이 최소 2단계가 향상된 1~2단계로 개선됐다고 에스텔박사는 보고했다.

협심증 2단계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이며 3~4단계는 식사나 양치질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가슴통증이 발생하는 단계.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심장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의 레이저 치료법을 승인했다. 많은 심장전문의들은 그러나 레이저 치료법이 개복(開腹)술이 필요하며 실제 시술 동안 환자의 사망률이 6~10%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회의를 표시해왔다.

중앙일보, 1999/03/08

레이저로 '10년 전' 피부 찾는다

일정한 파장으로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레이저는 파장이 길수록 깊이 침투하고,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조직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 피부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쓰여왔다.

레이저 치료는 기종의 특성에 따라 점, 기미, 주근깨, 검버섯, 혈관종, 사마귀, 여드름, 여드름 흉터, 탄살 등의 피부 질환 치료에 쓰인다. 눈가나 손등의 주름살을 펴거나, 피부 표면을 깎아 보드라운 피부로 바꾸는 탈피술에 쓰이기도 한다. 다리나 겨드랑이에 난 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도 한다.

물론 과색소 침착, 탈색, 흉터, 단순 포진 재발, 2차 감염 등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피부과 의사들은 "색소성 피부 질환은 모래알 크기의 100분의 1만 남아도 생명력이 있어 다시 돌아나기 때문에, 5~6번 시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9/03/10

<기 타>

북한, 30만배 확대 전자현미경 개발

북한 과학자들이 최근 30만배 확대 전자현미경을 연구 제작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렌무역관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6일 본부에 보고했다.

이번 전자현미경 개발성공으로 북한에서도 유전자 공학, 신소재 개발, 초미세가공기술분야 등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연

구발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1999/03/16

일본천문대, 지상최대 단일렌즈 광학망원경 설치

일본은 최근 하와이 최고봉인 마우나 케아산 정상 부근에 지구상에서 단일 렌즈로는 가장 규모가 큰 광학망원경을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분야에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국립천문대(NAOJ)는 지난 91년부터 4천억엔을 투자해 올해 1월초 마우나케아산에 구경 8.3m의 '수바루(SUBARU) 천체망원경' 설치 공사를 완료, 천체관측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이 망원경이 갖는 큰 의미는 망원경의 렌즈가 하나의 거울로 만들어져 천체를 관측한 자료의 선명도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 망원경으로 그 동안 관측해 인터넷에 제공한 사진들은 지구밖 인공위성에 설치돼 있는 미항공우주국의 허블우주망원경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대상인 초신성 폭발 등 지구에서 수백~수천광년 떨어진 천체 관측에 손색이 없어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망원경의 또다른 장점은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고장시 바로 수리할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본은 2000년대 초 수천억엔을 들여 하와이 이외에 칠레 등 안데스 산맥의 산 등에 구경 수십m 높이의 전파 망원경과 광학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우주과학에 대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천문대 관측장지라고 해야 보현산 천문대의 구경 1.8m의 광학망원경이 가장 큰 것이며 소백산 천문대의 61cm 반사망원경과 대덕천문대의 구경 14m 전파망원경 등 소형에 그치고 있다.

천문대 김봉규(40)박사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로 접어드는 2000년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천문분야에 있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장단기 계획을 세워 구경 5m 이상의 광학망원경 확보 등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9/03/11

광부품 시장 달아오른다 신제품 개발·마케팅 본격 나서

통신사업자들의 광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감쇠기 등 광부품시장을 겨냥, 업체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히로세코리아를 비롯, LG전선·한양정공·한국단지공업 등 광부품 생산업체들은 올들어 광시스템이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한솔텔레콤 등 전통신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라 고기능을 갖춘 신제품 개발과 함께 마케팅활동을 앞다퉀 강화하고 있다.

히로세코리아(대표 김연혁)는 그동안 일본 히로세와 광부품을 들여와 공급해 왔으나 올해부터 국내 생산을 확대키로 하고 다양한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한국통신용으로 생산한 0~40dB의 광가변 감쇠기의 가변폭을 0~60dB로 확대하고 6단계의 고정감쇠기 가변폭도보다 세분화시킨 제품 개발로 통신사업자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 올해 이 분야에서 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LG전선(대표 권문구)은 광점퍼코드와 어댑터·모듈·송수신기·감쇠기·분배함·커플러 등 국내 광부품업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수요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탄력적인 가격대를 적용, 시장점유율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 회사는 모듈과 송수신기를 올해 주력상품으로 키워 나가는 한편 업체들의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세분화시킨 제품 개

발을 추진, 올해 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방침이다.

지난 97년부터 광부품 개발에 주력, 패치코드와 고정감쇠기 등을 선보인 한국단지공업(대표 이창원)은 최근 가변폭 0~60dB의 광가변감쇠기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 이 분야에서 17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연말까지 50억원의 개발비를 집중 투입해 아이솔레이터를 비롯, 첨단 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놓을 예정이다.

광부품 전문업체인 한양정공(대표 홍영상)은 지난 87년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광고정 감쇠기를 비롯, 커플러·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에 이어 커넥터 플러그 타입의 단가변 감쇠기와 4개 채널용인 D(Dense)WDM을 개발하고 국내영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가변폭 0~60dB인 광가변 감쇠기를 미국 등 17개국에 수출해 올해 400만 달러 수출고를 올릴 계획이다.

전자신문, 1999/03/31

디지털영사기 등장 영화산업 대변혁 전망

화학처리된 필름에 빛을 비

취 은막에 화면을 실어온 영사기에 컴퓨터화 바람이 불면서 영화산업 전반에 큰 변혁이 일 전망이다.

2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35mm 필름대신 컴퓨터 코드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영사기가 개발돼 이미 시연단계에 있으며 재정 등 몇 가지 문제만 극복되면 2년 안에 일반극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영화제작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35mm 필름을 사용해 촬영, 편집을 하지만 원본이 완성된 뒤에는 '텔레시네'라는 디지털 복사기로 필름을 컴퓨터 코드화하고 디지털영사기는 이를 다시 CD나 DVD 플레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음향과 영상으로 바꾸어 스크린에 화면으로 띄우게 된다.

필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통 30회 정도 상영하고 나면 화면이 흔들리고 음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대도시의 개봉관이나 촌동네의 3류 극장 어디에서든 원본과 똑같은 고선명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영화사측에서도 영화 1편당 보통 5천여 권의 배급필름을 만들어 배포해 왔지만 디지털 영사기가 보급되면 1권당 2천여달러씩 들어가는 필름 복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위성 등을 통해 각 극장의

컴퓨터 서버로 영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필름을 배달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일반 필름의 경우, 사운드 트랙 수가 6개로 한정돼 있는 반면 디지털 영사시스템은 12개의 오디오 채널을 이용할 수 있어 추가되는 채널에 영화 분위기에 맞춰 의자를 흔들리게 하거나 화면 현장의 냄새까지 전달하는 등의 특수효과를 살릴 수 있다.

한겨레신문, 1999/02/23

LG산전, 스티커 자판기 출시

LG산전(대표 손기락)이 입체 스티커 사진 자판기(모델명 Debut 4u)와 음료 자판기 신제품 2종을 개발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스티커 사진 자판기 'Debut 4u'는 렌티큘라(Lenticular) 기능을 적용, 두 장의 각각 다른 스티커 사진을 합성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등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3차원 입체 기능도 추가해 생동감 있는 입체 사진을 제공하며, 배경인 뮤직비디오를 순간 포착하는 등 배경 화면 선택이 가능하다.

이외에 와이드 캡처 기능의 카메라와 17인치 세로형 모니터를 채용, 무릎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가격은 1400만원선.

전자신문, 1999/03/10

얼굴조각을 스티커 사진 찍듯 CAD/CAM연 개발

15분만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새겨 주는 3차원 조각기가 곧 등장한다. 과학기술연구원 CAD/CAM 연구센터 장민호, 노형민, 박세형 박사팀은 8개월 동안 1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이같은 조각기를 개발했다.

과기연의 3차원 조각기는 2대의 디지털 CCD카메라로 색 밝기의 값이 같은 두 점을 측정, 그 거리를 비교함으로써 입체정보를 분석하는 원리다. 측정하는 데 1초, 컴퓨터에 형상을 띄우는 데 10초가 걸리며, 나머지는 조각에 걸리는 시간. 과기연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밀도를 높여 머리카락까지 분석되도록 했다.

이같이 측정된 입체정보는 작은 동전 크기부터 A4용지 크기까지 다양하게 축소·확대시켜 조각할 수 있다. 이밖에 영화 게임 등 영상산업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특수효과, 치아의 썩은 부분을 측정하고 덧씌우는 보철분야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일보, 1999/04/05